

청년, 무겁거나 가볍거나

젊은 모색 2014展 2014. 12. 16~3. 2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오늘날 '젊음'은 특권이라기보다 불안과 좌절의 시대를 대변하는 듯하다. 젊음의 가치는 에둘러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현실의 무게를 희망이란 기제로 감추는 것처럼 보일 뿐이니 말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젊은 모색 2014>전은 전신인 <청년 작가>전을 포함하면 30년을 넘게 유지되는 신진작가의 등용문이다. 매해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작가를 선정하기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젊은 모색> 역시 해마다 작가 기준이나 전시 형식의 변화를 꾀했기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 터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젊은 예술가란 어떤 존재일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젊음은 도전적이지만 서툰 수밖에 없는 에너지이고, 열정으로 충만하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엔 모자라거나 넘치는 나이이기도 하다. 최근 청년들의 '열정페이' 논란이 화제였다. 이외에도 현재 젊음, 청년에게 도전은 사치스런 단어로 들릴 정도로 현실이란 무게는 측정 불가능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 갈 작가들에게 거는 기대는 기성세대가 있어버렸거나 다루지 못했던 영토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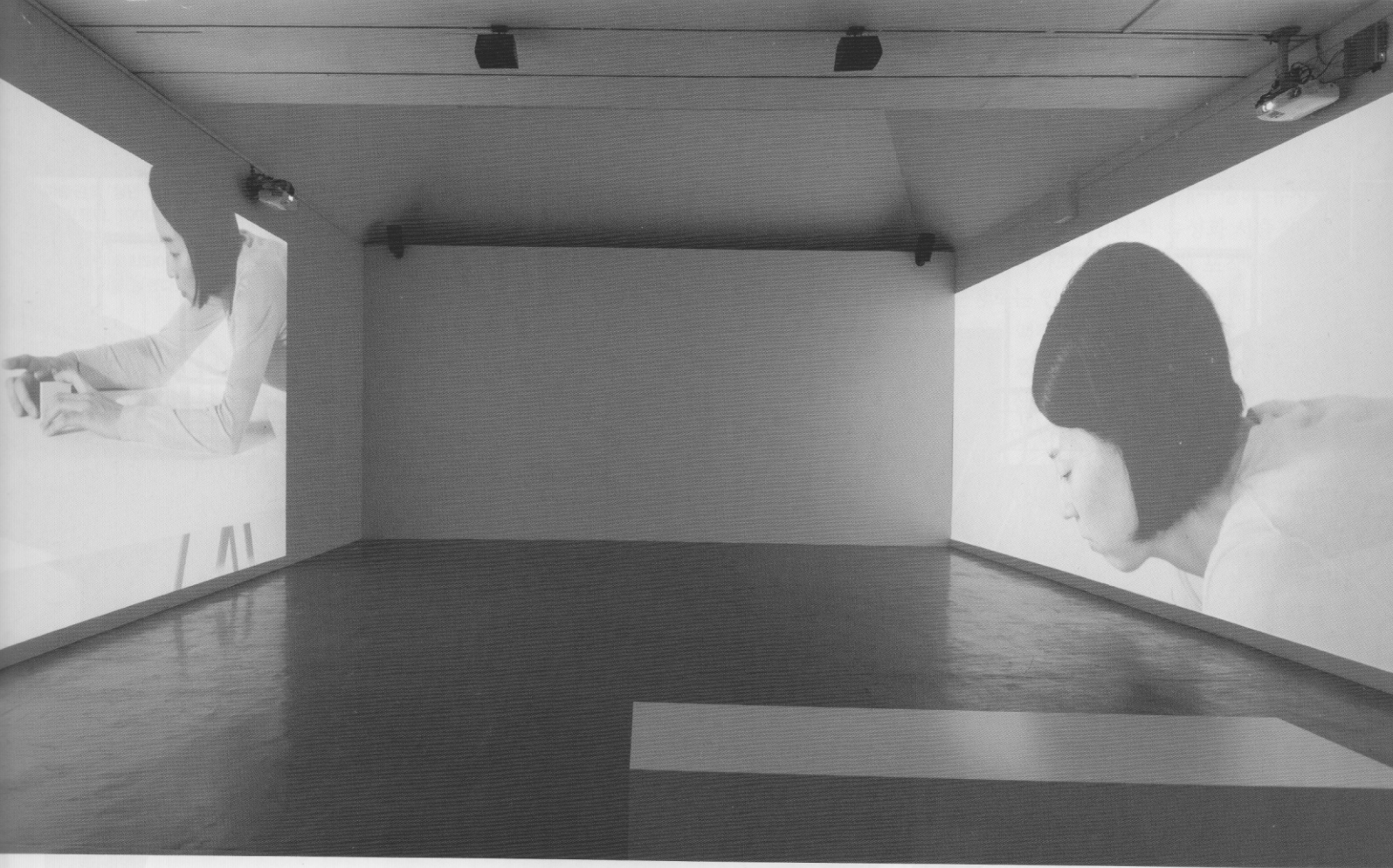
2013년도와 비교해 볼 때 2014년도 <젊은 모색>전은 복고적인 인상을 준다. 여기서 '복고'란 작업의 내용이

과거지향적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조형 양식, 표현 매체, 전시 방식 등을 가리킨다. 회화나 회화를 기반으로 한 작가들이 선정 작가들 중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 작업을 통해 직접적인 사회현실 문제보다 관념적인 부분이 보다 강하게 드러나는 점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관념이 현실과 분리된 것은 아니다. 오늘의 예술이 보다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현실 참여적이고 사회정치학적인 책임감을 예술가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예술가들이 현실과의 접점을 어떻게 발굴하거나 모색하고 있는지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매체와 질료, 공간과의 관계, 전시적 상황으로 해석되고 구현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작가들이 어떤 방식이나 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오늘의 예술 현실을 일구고 있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어찌면 이 같은 의견들은 작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젊은 모색>전의 기획 의도와 철학이 우선적으로 짚고 가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신진작가 등용문이 존재하는 무한경쟁 시대에 '올해 최고의 신진작가' 같은 타이틀을 요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선정 주체와 기관이 갖는 성격과 의지를 온전히 표명할 때 오히려 젊은 작가들의 열정과 가능성이 보다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적이고 은밀한 미로형 전시 공간

이번 <젊은 모색>전은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8명의 작가들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의 작가들이 회화 매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통적 회화적 방법론을 답습하기보다 되레 회화를 낯설게 재해석하는 측면이 강한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반기념비적 성격의 설치작업, 음악, 무용, 디자인과 조형예술 사이의 경계를 강조한 영상작업, 사건 바깥에서 일어나는 해석의 차이를 다루는 심리학적 영상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하위문화의 요소들을 이용한 작가들이 선정되었다. 신진작가 전시는 특정 주제를 다루지 않기에 전시 디자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대개 각 작가만의 분리된 공간을 제공하는 민주적 방법을 채택한다. 이번 전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특이하게도 '데드 스페이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각 공간들이 다른 작가들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의외의 흥미를 선사한다. 예를 들어, 입구로 들어서자 김하영의 전시 공간이 나타나고 동시에 양편에 다른 두 작가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출구를 통해 상대편 작가들의 작업을 엿볼 수 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미로처럼 여러 작가의 다양한 세계 사이를 횡단하는 전시 방식은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사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전시는 전시

위 · 오민 <마리나, 루카스, 그리고 나> 3채널 비디오, 6채널 오디오 2014
아래 · 조송 작가 섹션 전경
2014 국립현대미술관_<젊은 모색>전의 참여작가는 미술관 학예직을 대상으로 신진 작가들을 추천받아 내부 선정위원회의를 거친다. 이번 전시에는 권용주 김도희 김용용 김하영 노상호 오민 윤향로 조송 등 총 8명이 출품했다.





권용주 <폭포>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4_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젊은 모색>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의 가장
오래된 정례전으로 1981년
덕수궁미술관의 '청년 작가'
전으로 출발했다. 1990년부터
이름을 바꿔 격년제로 열리다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어 신진
작가 소개의 기회를 늘렸다.

공간의 풍부한 볼륨을 강조하는 편인데다 작가들에게는 이러한 공간적 성격을 보여 주는 걸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사적이고 은밀한 전시 구조가 작업과 관객 사이의 관계를 가깝게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덕분인지 많은 관객들이 공간 사이를 오가며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머무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앞서 잠시 운을 띄운 것처럼 <젊은 모색>과 같은 유형의 전시들은 특정한 기획 의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말 그대로 젊은 작가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최대한 보여 줄 수 있는 전시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작가들을 통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미술계의 화두, 비평적 측면의 담론 등의 관측은 예술과 사회 간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는, 또 다른 전시 효과일 것이다. <젊은 모색 2014>전에서는 개인적 일화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조송 노상호 김하영 권용주 김도희 등의 작업이 눈에 띄었다.

젊음의 내면, 그 사회적 표출

조송의 경우는 동양화 기법을 바탕으로 하지만 전통에 구속되지 않고 회화적 가능성을 확장하면서 우화적 요소를 통해 사회적 풍자를 품위 있게 제시한다. 노상호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감고 살아야 하는 마음”이라는 허구적 전제로 구성된 동화적 세계를 구현해 시각의 한계 속에서 나타나는 잔상의 여운을 선사한다. 김하영은 짐짓 발랄해 보이는 색채와 동화적 세계를 시각화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유쾌함이란 기표와 달리 불감증에 걸린 현대인의 삶과 세계를 초현실적으로 표출한다. 마케팅을 위한 동화 세계는 현실 곳곳에 즐비하지만, 이미 너무도 익숙한 것이 되어 버린 인공 세계의 요소들을 화면 안으로 끌어들이 조형적 실험과 회화적 성취를 동시에 획득하는데 성공한 듯하다. 대량생산된 허드레 공산품을 이용한 기념비적 브리콜라주로 인공 폭포를 설치한 권용주의 작업은 그 크기와 달리 절대 다수의 욕망을 비웃는 듯한 반기념비를 상징하고 있다. 김도희는 이번 전시에서 아마도 가장 도발적인 작업을 선보인 작가일 것이다. 몽유도원도를 연상시키는 회화는 실제로는 오줌이 마른 얼룩들의 집합일 뿐이다. 황홀한 한 모금의 물이 알고 보니 해골 안에 담긴 오물이었다는 깨달음처럼 그녀의 작업은 신화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트라우마가 되어 버린 아픔은 결코 쉽사리 사회의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늘 잠복하고 있다. 마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이가 결국 오줌을 지리는 것처럼 사회에 만연된 불평등과 폭력은 언어가 되지 못한 채 비체(아브젝트)가

되고 만다.

인간의 이중성을 연구한 김용용의 영상 설치작업은 '진실'의 모호함을 묻는다. 서로 마주한 2개의 영상은 동일한 사건에 관한 2개의 다른 의견을 재구성해 유사함 속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다. 영화적 속성과 서술적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작가의 의도를 쉽게 포착하기는 다소 어려웠다. 윤희로는 인터넷 세계 내부의 하위문화로 굳게 뿌리를 내린 탈문맥적 문화 현상인 '짤방' '움짤'을 작업으로 끌어들인다. 짤방은 인터넷의 특성상 내용보다는 시각적 흥밋거리에 더 집중하는 신세대의 풍속도로 게시판에서 자신의 글이 삭제당하지 않도록 내용과는 상관없는 불필요한 이미지 등을 이용해 관심을 끄는 일종의 장치를 의미한다. 이런 이미지들을 모아 만든 게 일종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과 유사한 '움짤'이다. 내용의 실체는 삭제되고 오히려 주변의 장치들로 가득 찬 비의미의 동시대 하위문화를 재현함으로써 고전적 의미의 재현과 문화를 상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음악, 디자인, 미술을 전공한 다채로운 이력이 작업에 고스란히 반영된 오민의 영상 퍼포먼스 작업은 소리, 움직임, 디자인의 오케스트레이션이 흥미롭다. 그녀의 영상은 강박적이지만 매혹적이고, 반복적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느껴진다. 고도로 정제된 화면의 구성, 색채, 움직임과 소리는 지나치게 위생적이고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지만, 질서정연한 리듬은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정치적 구호와 달리 획일성을 요구하는 외부의 권력에 관한 은유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시대에 따라 많은 게 변한다. 의식주, 문화, 도시, 성, 가치관 등. 변하지 않는 것이 곧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 30년을 넘게 오롯이 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기관, 기업들을 보면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격렬한 속도의 운명 속에서 너희들은 그래도 용케 버텼다는 대견함과 앞으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자조적인 염려가 뒤섞인다. 단지 장기적인 생존이 아닌, 세대를 넘어서 존중받는 존재란 밀란 쿤데라가 말했던 세대 간의 교감, 그 만남에서 일어나는 빛이나 미소와 같은 아름다움으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닐까? 바람이 있다면 <젊은 모색>전이 잘 차린 연례 행사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향한 인식의 품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정현